



<보호자 제공용> 자료는  
수의사 선생님의 진료 시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을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본원 로고를 삭제하여 배포와 공유 등에 제한 없이  
편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피부사상균증이란?

## 피부사상균증이란?

피부사상균이 각질과 털줄기를 따라 감염되는 **전염성을 가진 피부질환입니다**. 피부사상균증에 감염된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혹은 털, 각질에 오염된 물체를 통해 다른 동물,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및 치료, 환경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피부사상균증은 어린 개체, 면역력 저하 혹은 장기간의 면역억제제 투약으로 면역이 억압되어 있는 환자에서 발생 확률이 높으며 강아지의 경우 요크셔테리어, 고양이의 경우 장모종(페르시안 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묘 가정일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전염원으로 작용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염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임상 증상

피부사상균증은 곰팡이가 각질화된 피부 구조를 침투하여 발생하며, 증상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임상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병변은 지루성의 황갈색 각질과 탈모이며, 전형적인 링웬 형태의 병변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려움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가 많으며, 고양이에서는 주로 안면부, 귓바퀴, 입 주변에서 시작하여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진단 방법

피부사상균증은 증상의 중증도, 진행 정도에 따라 진단 확률이 달라지며 100% 확진법은 없기 때문에 우드램프 검사법 / 현미경 검사 / 곰팡이 배양 / PCR 등 다양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치료 및 관리

피부사상균증의 경우 곰팡이가 각질 뿐만 아니라 털줄기를 따라 감염되기 때문에 샴푸, 소독 등의 외용제만으로 치료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병변이 여러 개일 경우 경구 항진균제 투약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체와 각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줄 수 있는 약욕을 주 2회 진행해주는 것이 추천되며, 증상이 국소적일 경우 항진균 연고, 스프레이 적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사상균증으로 진단되었을 경우, 다른 동물과 사람의 전염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 내 환경을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천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감염 환자 다른 동거묘/동거견과 가능하면 격리 (12주령 이하에서는 사회화를 위해 격리하지 않는 것 권장)
- 2) 감염 지속적으로 재발할 경우 모든 침구류, 캣타워, 그루밍 용품 가능하면 버리기 (버리기 어렵다면 2회 세탁)
- 3) 러그 - 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일 청소기 돌리기 / 스팀 청소기
- 4) 테이프, 돌돌이 등으로 매일 생활 환경 속 털, 각질 등 제거하기
- 5) 이동 케이지 청소
- 6) 소독제 사용 (표면에서 약 10cm 떨어져서 3~5회 펌프 → 10분 뒤에 닦아주기)  
사용 가능한 소독제: 가정용 락스 (보통 5% sodium hypochlorite) 10~100배 희석